

김수근이 설계한 구 수도의과대학 부속병원 신축 병동(1963~65)의 건축적 맥락과 의미

Architectural Context and Significance of Swoo-Geun Kim's New Ward at the Former Soo-Do Medical College Hospital, 1963-1965

김 현 섭*
Kim, Hyon-Sob

*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Professor, Dept. of Architecture, Korea University, Korea
(Corresponding author: archistory@korea.ac.kr)

Abstract

Swoo-Geun Kim (1931-1986), a pioneer of modern architecture in Korea, introduced the form of exposed concrete as a prominent design vocabulary after his debut as an architect in 1960. This idea is evident in the Freedom Center (1962-1964), one of the most notable works from Swoo-Geun Kim's early career. A similar approach is reflected in the new ward of the former Soo-Do Medical College Hospital (1963-1965). However, this building has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When it is discussed, the focus tends to center on the exposed concrete, a hallmark of the architect's early design style. Architect Hyun-Sik Min, in a 1993 writing,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space' over 'form' in this building, describing it as a significant example of Korean architecture from the 1960s. This observation calls for a deeper examination and reinterpretation of the structure, particularly since the new ward was not a standalone building but an addition to the existing medical school and affiliated hospital complex. Its context and spatial relationships within the larger complex are crucial to understanding its significanc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new ward's integration with its existing surroundings, as well as its form and spatiality. By doing so, it seeks to expand the understanding of Swoo-Geun Kim's early works and shed light on the evolution of modern architecture in Korea during this period.

키워드 : 김수근, 수도의과대학 부속병원, 노출콘크리트, 형태, 공간, 건축적 맥락, 민현식, 한국 현대건축

Keywords : Swoo-Geun Kim, Soo-Do Medical College Hospital, Exposed Concrete, Form, Space, Architectural Context, Hyun-Sik Min, Modern Architecture in Korea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 현대건축사 가운데 김수근(1931~86)의 위치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오히려 지금은 신화화된 그의 건축에 대한 비판적 이해도 여러 각도에서 증진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한국 현대건축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공간사옥(구관 1971~75; 신관 1976~77)이 처음 출판 당시는 공간그룹 실장이던 김원석(1937~2021)의 이름으로 나왔음이 최근 조명됐다(Kim, 1975; Kim, 2021a).¹⁾ 익히 예상되는 바지만, 이 건물이 김

수근 단독의 작품이기보다 김수근 '팀'의 공동작업 결과였음이 부각된 셈이다. 물론 군부독재기 인권탄압의 상징이던 남영동 대공분실(1976~77)이 김수근에 의한 것임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인데, 이것이 공간사옥 신관과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모티브를 지니고 세워졌음도 근래 더욱 주목을 받았다.²⁾ 실증적 고찰이든 비판적 해석이든, 한국 현대건축사를 더 넓고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건축에 대한 연구가 다면적으로 지속돼야 할 것이다.

1965년 9월 개원한 김수근 설계의 구 수도의과대학 부속병원 신축 병동(1963~65)은 그간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건물이다. 1960년 즈음 한국 건축계에 데뷔한 그의 초기 디자인인데,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기념성이 강조됐던 비슷한 시기의 자유센터(1962~64)에 비하면 대중적인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공간』의 경우 1968년 4

이 논문은 2024년도 12월 고려대학교 여성학사연구소 제3회 정기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을 확장하여 작성한 것이다.

1) 이는 구관에 대한 출판인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구관만의 평면도가 여기 포함된 것도 새로운 발견이다.

2) 대표적으로 Society of Korean Modern Architecture and Urbanism & Korea Architect Institute(2019)를 참조하라.

월 김수근에 대한 첫 특집호를 낼 때 한 페이지를 할애해 네 컷의 사진을 올리긴 했다(Kim, 1968; Figure 1). 하지만 일곱 페이지에 걸쳐 다수의 사진을 게재한 자유센터와 견줄 바는 아니다. 그리고 같은 잡지의 이후 김수근 특집호(1980.1)에서도 작품 목록에 한 컷의 사진이 올랐을 뿐인데, ‘고려의대 부속병원’이라는 이름으로였다(Kim, 1980). 김수근 건축에 관한 대표적 문헌인 정인하의 『김수근 건축론』도 이 건물을 크게 다루지 않은은 마찬가지다(Jung, 1996). 여기서는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와 단게 겐조(丹下健三, 1913~2005)의 영향을 받은 김수근의 초기 노출콘크리트 건축에 관한 서술에서 사진 한 장과 함께 잠시 언급되는 정도였다. 건축계의 상황이 이렇던데, 수도의과대학(이후 우석대학교 의과대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쪽의 역사 속에서 이 병원 건물이 건축적으로 주목될 리는 만무하다. 물론 이제 학교 쪽에서도 그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말이다.



Figure 1. Soo-Do Medical College Hospital, Seoul, 1963-65, as published in *SPACE* (April 1968): The images were captioned “(Top left) Exposed Concrete Facade; (Top right) Ceramic Relief; (Bottom) Main Entrance and Canopy”.

이런 상황을 인지한 이가 이 건물에 관한 건축가 민현식(1946~)의 1993년 회고문을 접한다면 당 건물을 새롭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글은 ‘사라져가는 한국의 현대건축’을 특집으로 했던 한국건축가협회의 『건축가』(1993.4)에 「우석대학 부속병원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것으로(Min, 1993),³⁾ 크게 두 가지 유의미한 점을 전한다. 첫째, 재미건축가 김태수(1936~)가 1960년대 말 방한했을 때, 후배들에게 한국 현대건축의 중요한 사례로 이 건물을 추천했다는 점이다. 한국 건축계에서 그가 차

지하는 독특한 위상은 그의 견해에 눈길을 가게 한다.⁴⁾ 둘째, 민현식이 처음에는 이 건물의 조형성에 인상을 받았지만 수년 후 다시 방문하고는 “입구 필로티의 공간감”에 “엄청난 충격과 환희”를 느꼈다는 점이다. 낮고 어두운 필로티 공간을 지나 밝고 큰 광장을 만났을 때의 “해방감” 때문이다. 그는 여기서 ‘형태’보다 ‘공간’을 주목했던 것인데, 결국 이 건물이 “60년대 한국 현대건축의 대표성”을 지녔고 자신의 성장에 “어느 교과서보다 중요했던” 사례였다고 말한다.

민현식의 평가는 이 건물에 대한 그간 건축계의 관심도에 견주면 대단한 상찬이다. 하지만 그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는 당 건물을 더 깊이 고찰하고 재해석할 필요를 제기한다. 특히 이 건물이 외관 사진 하나로 판단할 수 있는 단일한 오브제가 아니라 장기간 형성된 기존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콤플렉스에 덧대어진 건물이고, 그래서 그 맥락과 공간 관계가 중요하다면 더욱 그렇다. 즉, 그간의 이해가 강조한 노출콘크리트의 조형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못지않게 건물이 놓인 맥락과 공간 관계 또한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기본설계에 참여했던 윤승중이⁵⁾ 최근까지도 “거리의 오브제”라는 말로 이 건물의 조형성을 우선시했던 바는 흥미롭다(Yoon et al., 2014). 건물 설계상의 주안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민현식의 “새로운 발견”을 오히려 더 뜻깊게 하기 때문인데, 윤승중이 이를 “게이트 빌딩”이라고 적확히 표현한 바도 주시해야 한다. 이 같은 배경하에 본고는 김수근이 설계한 구 수도의과대학 부속병원 신축 병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고찰해 그의 초기 건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신축 병동 자체의 조형성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기존 건물군에 덧대어진 맥락과 공간 관계를 살필 것이다. 여기에는 당대 수도의과대학 캠퍼스에 대한 고찰이 선행될 수밖에 없는데, 이 연구의 또 다른 의의라 하겠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상기의 연구 목표에 따라 본고는 우선 2장에서 기존 수도의과대학 캠퍼스의 건축적 맥락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 신축 병동의 건축적 특성과 의미를 논할 것이다. 다만 현재 이 건물과 캠퍼스가 현존하지 않음을 인지해야 한다. 때문에 이 연구는 문헌과 자료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는데, 선행문헌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각종의 1, 2차 자료를 새로이 발굴해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론을 취할 것이다.⁶⁾ 2장에서는 국가기록원에

3) 송율이 담당하는 이 특집은 김중업의 명보극장, 주한프랑스대사관, 제주대학교 본관, 그리고 김수근의 우석대학교 의과대학(구 수도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사례로 했다(Song, 1993).

4) 김태수는 서울대학교를 거쳐 예일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이후 미국에서 활동한 건축가다. 그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1983-86)의 설계자이며, 한국 젊은 건축가들의 해외여행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건축계와 관계하고 있다.

5) 윤승중의 기본설계 참여에 대해서는 Kim(1966)을, 윤승중 건축의 의미에 대해서는 Kim(2022b)을 참조하라.

6) 이에 더해 민현식과의 대담도 진행했으나 그는 30년 전의 글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했다. 필자와 민현식의 대담, 서울 종로구 이화동 건축사사무소 기오현, 2023.9.14.

소장된 1963년 수도의과대학 도면, 그 전후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과 해당 학교의 졸업앨범 사진, 일간지 기사 등을 주요한 자료로 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모든 문헌과 자료를 참조하되 대한건축학회의 『건축』(1966.9)이 출판한 신축 병동의 건축 개요를 유관 최초 정보로 여겨 연구의 발판으로 삼을 것이다(Kim, 1966).

2. 기존 수도의대 캠퍼스의 건축적 맥락

2.1 명륜동 캠퍼스의 역사

김수근이 설계한 구 수도의과대학 부속병원 신축 병동을 논하기 위해 먼저 이 학교와 캠퍼스의 역사를 개괄해보자.⁷⁾ 수도의과대학의 뿌리는 1928년 서울 창신동에 개소한 조선여자의학강습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학교는 1933년 경성여자의학강습소로 이름을 바꿨고, 1938년 설립된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이하 경성여의전)로 승격됐다. 경성여의전은 잠시 이화동의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더부살이를 하다가 경성고등상업학교가 1920년부터 명륜동에 조성한 기존 교정과 교사를 확장해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수도의과대학 캠퍼스의 바탕이었다. 1941년 경성여의전은 부속병원을 개원해 같은 캠퍼스에서 학교와 병원을 동시에 운영하게 된다. 1948년에는 경성여의전과 그 부속병원이 각각 서울여자의과대학과 그 부속병원으로 승격됐다. 그리고 1957년에는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며 수도의과대학으로 명칭을 바꿔 병원도 수도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개칭했다. 김수근이 설계한 것은 이 부속병원 본동과 별개인 신축 병동이다.



a) SDMC Hospital, 1965 b) KUMC Hospital, 1972

Figure 2. Invitation to the new ward of Soo-Do Medical College Hospital (*Dong-A Daily*, 15 September 1965) and the announcement of the launch of Korea University Medical College Hospital (*Dong-A Daily*, 10 January 1972).

1966년 수도의과대학(이하 수도의대)은 국대학과 통합해 종합대학 우석대학교의 의과대학이 됐고, 1971년에는 우석학원이 고려중앙학원에 합병되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거듭났다. 병원도 개편된 체제에 따라 각 의과대학에 부속됐다. 그리고 20년 뒤인 1991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은 명륜동 캠퍼스를 떠나 새로 개발된 안암동의 녹지캠퍼스로 이전한다. 이에 따라 명륜동 캠퍼스의 모든 건물이 철거됐고, 대신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Kim, 1993).

7) 이하의 약사는 1934년 『경성여자의학강습소 교우회지』 창간호를 비롯한 학교 문헌, 일간지, 잡지 등 각종의 자료를 참조해 간추렸다.

2.2 1963년의 수도의대 캠퍼스: 김수근의 신축 병동이 놓일 건축적 맥락

1957년 수도의대 출범 당시의 캠퍼스와 교사는 전술했듯 경성여의전 캠퍼스와 교사를 바탕으로 했다. 물론 그 사이 제약된 대지 내에 여러 건물이 개축, 증축, 신축되기도 했다.⁸⁾ 본고의 관심사는 김수근의 신축 병동이 설계되던 1963년 당시의 건축적 맥락이다. 다행히 이때의 수도의대 배치도가 남아있어 그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Figur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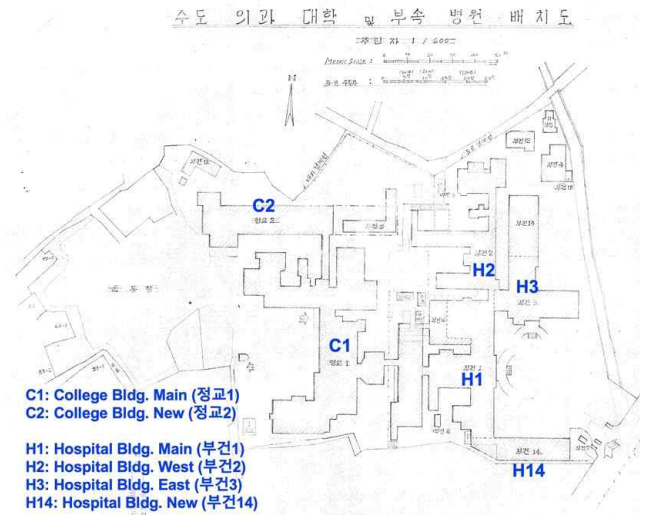


Figure 3. 'Site Plan of Soo-Do Medical College and Hospital', 1963 (Sourc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legend inserted by the author)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수도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배치도'와 주요 건물 평면도 등 도합 12매의 도면이 보관돼 있다. 모두 1963년도를 생산연도로 기록한 것이다. 이 자료에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지만, 본고가 주목하는 기본적인 면에서도 유의미한 사항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캠퍼스는 '혜화동 로터리' 남서측에 바로 인접해 있다. 상기 배치도의 우측 하단에 그려진 '부근 안내도'가 종로에서 혜화동 로터리에 이르는 근방의 도시적 맥락을 보여주는데, 현재의 종로구 명륜2가(경성여의전 설립 시의 '명륜정2목')에 해당한다(Figure 4). 둘째, 이 캠퍼스는 크게 서측의 학교 영역과 동측의 병원 영역으로 나뉜다. 즉, 병원 영역이 혜화동 로터리를 지나 북동-남서 방향의 대로(현 '창경궁로')에 면해 있으며, 학교 영역은 후면의 호젓한 소로로 접근하도록 돼 있다. 병원 영역을 대로에 면케 한 것은 내원객 접근의 용이성을 위한 자연스런 배치인데, 병원과 학교 건물을 서로 연결해 캠퍼스 내 이동도 고려했다. 셋째, 학교와 병원은 증대되는 의료 수요에 부응해 계속해서 건물을 신

8) 이 사실은 경성여의전 설립을 준비하며 마련한 1937년의 캠퍼스 배치도와 후술하는 1963년의 수도의대 캠퍼스 배치도를 비교하면 알게 된다. 모두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Korea)이 소장하고 있는데, 전자는 '전기설비공사설계도'의 일부다.

축했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 영역에는 이전부터 있던 ‘본관교사’ (배치도상 표기 ‘정교1’)의 북측으로 ‘신관교사’ (‘정교2’)를 두었고, 병원 영역에는 ‘병원본동’ (‘부건1’)과 ‘서병동’ (‘부건2’) 및 ‘동병동’ (‘부건3’)에 더해 ‘신관병동’ (‘부건14’)을 두었다. (이 ‘신관병동’은 김수근의 신축 병동보다 먼저 있던 것이며, 후자는 전자에 잇대어 계획된다.) 병원 역역의 경우 ‘병원본동’과 ‘동병동’이 그 앞 오픈 스페이스를 서측과 북측에서 경계 지었다면, ‘신관병동’은 남측 경계를 이룬다. 결국 이 병원 건물들은 동측의 오픈 스페이스를 ㄷ-자 형태로 둘러싼 양상을 만들었던 것이다. 넷째, 캠퍼스는 전체적으로 학교 영역의 ‘본관교사’ 앞, 병원 영역의 ‘병원본동’ 앞, 운동장을 제외하면 직각체계에 놓인 건물들로 빼곡하게 밀집된 상태다. 병원 영역의 오픈 스페이스는 광장 같은 앞마당이기도 하지만 차량 동선을 최우선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배치도의 ‘병원본동’과 ‘동병동’ 출입구 앞에 차량용 경사도가 그려져 있고, ‘신관병동’ 1층 평면도의 출입구 앞에도 차량용 경사도가 그려져 있다. 환자 이송을 위함인데, 후술할 사진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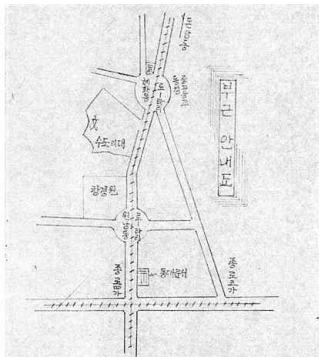


Figure 4. ‘Vicinity Map’, drawn beside ‘Site Plan of Soo-Do Medical College and Hospital’, 1963 (Source: National Archives of Korea)

1963년의 배치도를 비롯한 도면 자료에서 파악되는 당시 캠퍼스의 대체적 윤곽은 이후의 사진 자료를 통해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연구가 기본적으로 근거하는 자료는 이 1966년(수도의대), 1970년(우석대 의과대학), 1972년 이후(고려대 의과대학) 졸업앨범에 실린 캠퍼스 사진이다(esp. WSMC, 1970; KUMC, 1972). 이에 더해 그 일대에 대한 국토지리정보원의 1972년 항공사진도 도움이 된다.⁹⁾ 상기의 배치도 등과 함께 이 사진 자료를 검토하면 김수근이 신축 병동을 설계하던 때의 건축적 맥락을 추가로 알 수 있다. 본고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내용만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성역의전 시절부터 있었던 건물들은 대개 2~3층 규모에 경사지붕을 가

9)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국토정보맵’에서 지역별, 시기별 항공사진을 찾아볼 수 있다. 수도의대 신축 병동이 들어선 뒤 가장 이른 시기의 항공사진은 1972년의 것인데, 이 사진과 다른 시기의 항공사진을 비교해 고찰했다(NGII, 1972).

진 모더니즘 이전 유형에 속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디자인적으로 눈에 띄는 건물은 ‘병원본동’이다(Figure 5). 정면인 동쪽 입면은 앞으로 살짝 돌출된 중앙 출입구 중심으로 좌우대칭이며, 그 중앙 입면 상부를 삼각형 박공 형식으로 처리해 기념비적 권위를 부여했다. 출입구 캐노피 아래 창호를 커다란 아치로, 그리고 캐노피 위의 연속 창 셋을 일련의 아치로 틀 지은 점도 소박하나마 기념비성에 일조한다. 2층 위 경사지붕의 다락창도 외관을 변화 주는 요소다. 내원객을 직접 맞이하는 주요 건물이니 만큼 디자인에 신경을 썼으리라 생각된다.



Figure 5. Main Hospital Building (H1) (Source: KUMC, 1972)



a) New College Building (C2) b) New Hospital Building (H14)
Figure 6. Modernist buildings (Source: WSMC, 1970; KUMC, 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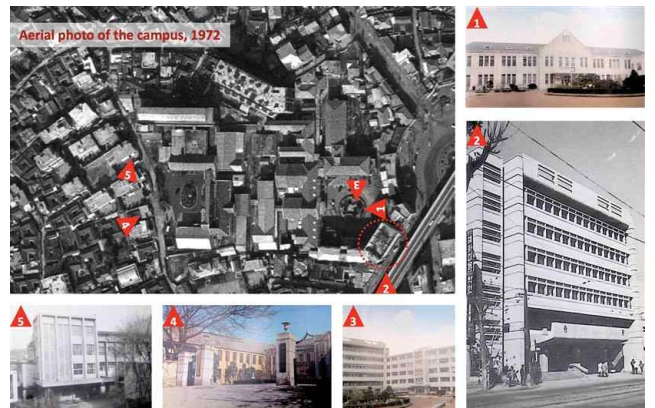


Figure 7. Aerial photo of the campus, 1972 (Source: NGII, 1972) and notable buildings in the campus around 1972

둘째, 1963년 배치도의 ‘신관교사’ (1958)와 ‘신관병동’ 중 후자는 정확한 건축연대는 알 수 없지만 ‘신관’이라는 말에서, 김수근의 신축 병동을 기준으로 가까운 과거의 건물이라 추정된다. 평면도에는 각각 3층과 4층 규모에 옥탑이 있는 것으로 작도됐다. 졸업앨범 사진을 통해 두 건물이 모두 기능주의 모더니즘을 받아들여 디자인됐음을 알 수 있다(Figure 6). 평활한 벽면과 넓은 창, 수직 루버에 도드라진 기하학적 조형성이 이를 입증한다. 다만 이후 옥상에 한 층씩 증축할 때 증축부를 경사지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두 건물의 경사지붕 형태는 1972년 항공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Figure 7). 셋째,

도면에는 그려지지 않았지만 ‘본관교사’와 ‘병원본동’ 앞의 오픈 스페이스가 모두 자동차 순환을 위한 일종의 로터리로 조성됐음을 사진이 말해준다. 이를 위해 두 곳 다 커다란 화단을 오픈 스페이스 중앙에 배치했는데, (항공사진에서 확인되는 바) ‘병원본동’ 앞 화단이 원형인 데 반해 ‘병원본동’ 앞 화단은 타원형임이 흥미롭다. 후자의 형태는 그 공간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았던 상황에 기인했을 것이다.

김수근 설계의 수도의대 신축 병동이 들어서던 전후, 캠퍼스의 건축적 맥락이었다.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둔다면 해당 건물에 대한 이해가 더 튼튼해질 것이다.

3. 김수근과 구 수도의대 부속병원 신축 병동(1963~65)

3.1 1960년대 전반의 김수근

수도의대 부속병원 신축 병동을 설계하던 1963년의 김수근은 32세의 젊은이였다. 하지만 이때 그는 데뷔 3년 차 건축가로서 화려한 경력을 시작하고 있었다. 동경대학 대학원 재학 중이던 1959년 동료들과 함께 출품한 남산 국회의사당 공모안이 그해 말 당선되면서부터였다. 비록 이 프로젝트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무산되지만 그는 정권의 비호 아래 위커힐 힐탑바(1961~62), 남산 자유센터(1962~64)와 같은 국가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리고 삼호공업사(1962), 오양빌딩(1962~64), 남산맨션(1965) 등의 민간 프로젝트도 수행했는데, 수도의대 신축 병동도 그 시기의 작업이었던 것이다.

서론에 대비쳤듯 이 시기 그의 대표작으로는 자유센터가 손꼽힌다.¹⁰⁾ 거대 규모의 기념비적, 노출콘크리트의 조형성 등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수도의대 신축 병동은 국가 규모의 기념비적 건물은 아니지만 노출콘크리트를 활용한 조형성에서 자유센터와 공유하는 속성이 많다. 전술한 여타 사례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단 모두 노출콘크리트로 마감됐고, 그 질감과 그로 만든 형태가 강렬한 인상을 준다. 노출콘크리트의 조형성 측면에서는 김중업(1922~88)이 주한프랑스대사관(1959~62)에서 이미 두드러진 성취를 보였지만 김수근 역시 그런 특성과 관련해 선포되는 또 다른 역량과 열심을 보였다고 생각된다. 정인하도 지적했듯 김중업이 르코르뷔지에로부터 직접 노출콘크리트 수법을 배웠다면 김수근은 일본이 르코르뷔지에를 자기화한 방식을 배운 것에 가깝다(Jung, 1996). 예컨대 단계 건조는 가가와 현청사(1955~58)에서 노출콘크리트로 일본의 목구조 형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고 평가 받는데(Stewart, 1987; Tange & Fujimori, 2020), 그런 영향이 남산 국회의사당 계획안 등 김수근의 여러 디자인에서 감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계가 구라시키 시청사(1958~60)에 선보인 곡선형 캐노피 같은 특정 어휘는 자유센터 등 몇몇 건물에도 나타나며 수도의대 신축 병동에서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고자 한다.

10) 자유센터에 관한 최근의 논의로는 Kim(2024)이 있다.

요컨대 1960년대 전반의 김수근은 야심찬 젊은 건축가로서 자신이 그동안 습득했던 세계건축의 흐름을 고국에서 마음껏 펼치고자 했다. 수도의대 부속병원 신축 병동은 그런 배경 가운데 설계된 건물이었다.



Figure 8. Swoo-Gen Kim, Freedom Center, Seoul, 1962-64 (Source: Kim, 1968)

3.2 수도의대 부속병원 신축 병동의 건축 개요

수도의대 부속병원 신축 병동이 1965년 9월 개원했음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인데, 그 건축 개요는 한 해 뒤 대한건축학회의 『건축』(1966.9)에 출판된다. 「수도의대 부속병원 신관」이라는 제목으로였다. 할애된 한 페이지에서는 우선 두 컷의 도판(정면 사진, 1층 평면도)이 눈에 띈다(Figure 9). 그리고 여기에 건축 개념에 대한 서술은 없지만 ‘주소’, ‘주요용도’, ‘설계’ 등 기본 정보가 있어 건물 전반의 이해를 돕는다. 예컨대, 설계는 ‘김수근건축연구소’로 명시됐으며, 운송중이 ‘기본설계’를 담당했음도 여기 적혔던 것이다. 건물 규모는 지상 6층에 지하가 없음이 표기됐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에 외벽 마감이 ‘exposed con.’(노출콘크리트)임도 표기됐다. 외벽 마감의 ‘기타’에 ‘ceramic tile mosaic 벽화’가 적힌 것도 눈길이지만 그 이상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Kim, 1966).

도판은 역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먼저 정면 사진이 건물 전체의 인상을 보여준다. 3층부터 6층까지 매층마다 스펀드럴과 창이 건물에 수평성을 부여하는 한편으로, 수직과 수평의 루버가 (살짝 후퇴해 선) 가로로 긴 창에 질서와 리듬을 주고 있다. 비스듬히 솟은 옥상의 파라펫은 하층의 스펀드럴보다 키가 큰 대신 좌우에 개구부를 두어 파사드 상단의 변화를 주도한다. 그러나 이 못지않게 건물 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1층의 필로티 공간과 그 위의 구부러진 캐노피다. 필로티가 외벽면보다 후퇴해 서있고 그 공간이 병원 안팎으로 개방된 까닭에 그늘져 어두워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 위로 캐노피가 돌출돼 드러난다. 1층 좌측에는 5~6단의 계단이 있고 병동 실내로 진입하는 현관이 있으며, 그 옆으로는 같은 플랫폼 위에서 병원 영역 안쪽으로 진입하는 통과 보행로가 있다. 그리고 계단 우측 플랫폼 아래는 주변 도로와 같은 레벨로 병원 영역 안팎을 매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외관 사진이 다른 문헌에서도 발견되는 데 반해, 1층 평면도는 『건축』에만 출판된 희소자료로 보인다. 사진에서 불명료했던 사항이 평면도에서 확인되는데, 대표적으로 기둥의 배열에서 간파되는 구조체계다. 이는 외벽에 연결된 기둥 및 앞뒤로 배열된 세 개씩의 독립 기둥(필로티)이 형성한 9m×5.6m 스펀의¹¹⁾

시스템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기둥 열로 볼 때 전면 4베이(bay) 시스템으로, 우측에서 두 번째 베이가 자동차 통로다. 하지만 이 평면도에는 상기의 좌측뿐만 아니라 우측으로도 계단이 그려진 듯 보여 혼동된다. 바닥 패턴을 그린 것인지도 모르겠으나 이 도면이 최종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¹²⁾ 이처럼 이 평면도에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 사항을 읽을 수 있다. 현관실 좌측에 덧붙여진 계단실이 직교체계를 벗어난 형태라는 점이다. 기존의 병동, 즉 상기 1963년 배치도의 ‘신관병동’ 과 연결해 지어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의 접합은 본고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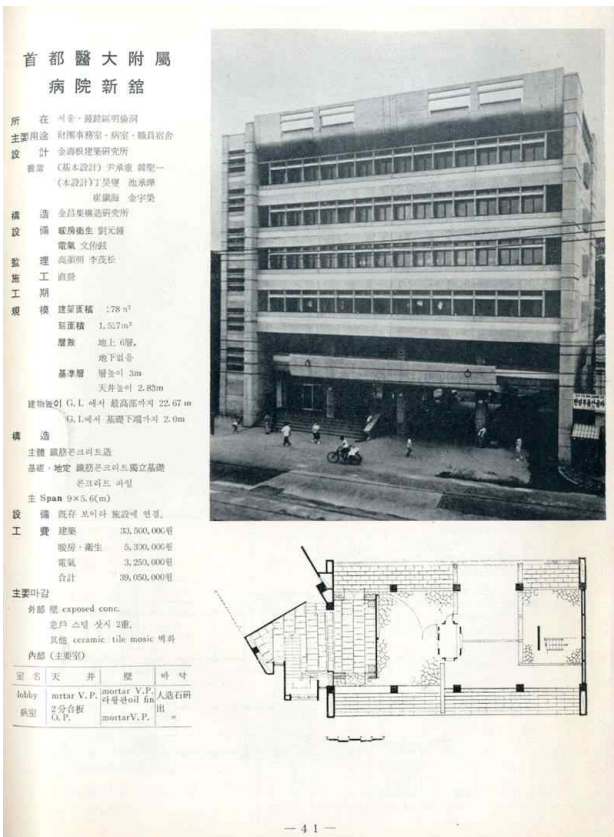


Figure 9. 'New Ward of Soo-Do Medical College Hospital', as published i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건축』, 1966.9; Kim, 1966)

3.3 김수근 신축 병동의 건축적 특성과 의미

지금까지 1963년 즈음 수도의대 캠퍼스와 건축가 김수근의 상황, 그리고 그의 설계로 1965년 해당 캠퍼스에 들어선 신축 병동의 건축 개요를 살펴보았다. 이번 절에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신축 병동의 건축적 특성을 재검토하고 그 의미를 기존 맥락과의 관계, 조형성, 공간성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11) 이 수치는 건축 개요에 기재된 정보로서, 평면도의 축척과 별개로 건물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12) 또한 현관실 우측으로 그려진 커다란 문이 실제 설치됐던 것인지 등 평면 내의 세부적 내용은 더 확인이 필요하다.

(1) 기존 캠퍼스 및 도시적 맥락과의 관계: 우선 김수근의 신축 병동이 기존 캠퍼스에 세워진 위치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자. 이 건물이 부속병원의 신축 병동인 만큼 캠퍼스 동측의 병원 영역에 세워졌음은 물론이다. 구체적으로는 1963년 배치도의 ‘신관병동’ 우측으로 대지 경계선을 따라 60° 가까이 꺾여 연결되면서, 그 옆에 위치했던 병원 출입구 자리에 건축된 것이다(Figure 10). 캠퍼스 전체로 보면 그 위치가 남동쪽 끝자락이며, 바깥으로는 혜화동 로터리 옆 북동-남서 방향의 대로에 바로 면한다(Figure 11). 사진과 평면도에서 확인했듯 내원객은 도보로든 차량으로든 이 건물을 통과해 수도의대 부속병원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즉, 신축 병동은, 운송중의 표현대로, 이 병원의 혹은 캠퍼스 전체의 “게이트 빌딩”에 다름 아니다(Yoon et al., 2014). 따라서 기존 캠퍼스와 인근 도시의 맥락을 이어주는 매개물로서의 의미도 있는 것이다. 또한 6층으로 솟은 높이로 인해 건축 당시에는 수도의대 캠퍼스뿐만 아니라 인근 시가지에서 일종의 랜드마크로도 역할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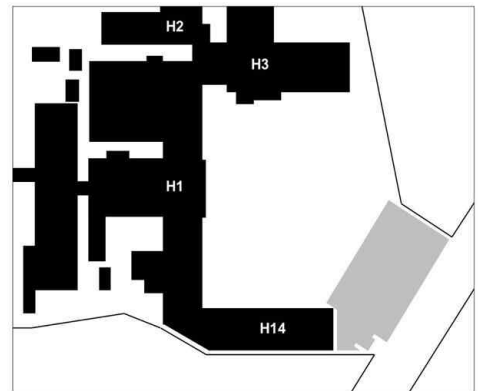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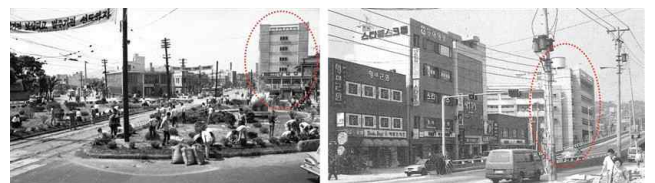


Figure 10. Part of the hospital area of the Soo-Do Medical College campus, 1963, with Swoo-Geun Kim's new ward indicated in grey (Author's drawing)



a) Northern view, 1966 b) Southern view, 1991
Figure 11. Urban context in which Swoo-Geun Kim's building was located (Source: Seoul Museum of History; Kim, 1993)

한편, 2장에서 고찰했듯 이 캠퍼스에는 1920년부터 건물들이 신축, 증축, 개축되며 빠르게 들어섰기 때문에 여러 겹의 시간 켜가 공존하고 있었다. 크게 보자면 경사지붕과 박공면으로 대표되는 모더니즘 이전 시기의 건물이 주조를 이루되(예: ‘병원본동’), 평활한 벽면과 넓은 창, 기하학적 조형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근대 기능주의 건축도 두엇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다(예: ‘신관병동’). 그런데 여기에 한 단계 더 업데이트된 김수근의 노출콘크리트 건물이 덧대어진 것이다. 후자는 르코르뷔지에식

으로 말한다면 전기 경력의 미끈했던 기계미학을 벗어나 후기 경력의 브루털(brutal)한 속성을 지닌 당대의 경향이 었다. 그런 경향을 김수근이 일본이라는 필터를 통해 가 감했을 것임은 전술한 바다. 요컨대 김수근의 신축 병동 은 여러 시간 켜가 누적된 기존 캠퍼스에 최신의 층위를 중첩시켰다고 하겠다.

(2) 건물의 조형성: 김수근의 신축 병동이 캠퍼스의 게이트 빌딩이었고 인근 시가지의 랜드마크였으리라는 점, 그리고 최신의 노출콘크리트 건물이었다는 점은 이 건물 의 조형성과 직결된다. “콘크리트 익스포즈드를 통해서 정교하게 디테일을 만들고 거리의 오브제로 만들었다” 는 윤승중의 말은 조형성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이슈였 음을 뚜렷이 보여주는데(Yoon et al., 2014), 정인하가 1960년대 김수근의 건축을 “노출콘크리트와 조형의지” 로 설명한 것도 그 맥락에서 이해된다(Jung, 1996). 노출 콘크리트를 포함해 이 건물의 조형성과 관련된 논의를 더 진행해 보자.



Figure 12. Exposed concrete exterior of Le Corbusier's Unité d'Habitation, Marseilles, 1947-53 (Author's photo)



a) Le Corbusier, 1951-63 b) K. Tange, 1958-60

Figure 13. Curved canopies of the Palace of Assembly, Chandigarh, India and the Kurashiki City Hall, Japan



a) Northern entrance b) Southern entrance

Figure 14. Curved canopies of the Freedom Center (Author's photos)

첫째, 콘크리트 면을 마감하지 않은 채 그대로 드러내 는 노출콘크리트의 어휘는 그 자체로서 이 건물 조형성 의 밑바탕이다. 이 방식은 거푸집 형틀 자국을 거칠게 표 출함으로써 건물 전체에 강렬한 인상을 주는데, 르코르뷔 지에의 마르세이유 위니테 다비타시옹(1947~53) 이후 세 계적 유행을 타게 된다(Banham, 1966). 일본에서는 “코 르뷔지에 파” 건축가들을 통해 이 흐름이 일본화됐다고 여겨지는데,¹³⁾ 단계의 영향이 김수근과 관련됨은 앞에서 시사했었다. 자유센터는 르코르뷔지에와 단계 모두로부터 의 영향을 드러내는 대표작이며,¹⁴⁾ 수도의대 신축 병동도 같은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둘째, 노출콘크리트 면 처 리의 연장에서 건물의 조형성을 보완하는 요소로, 앞의 건축 개요가 언급한 ‘ceramic tile mosaic 벽화’ 는 유의 미하다(Figure 1). 이는 입구 필로티의 관통로 측벽에 제 작된 것인데, 정인하는 이것이 “노출콘크리트의 투박함 을 상쇄시키고 건물에 풍부한 이미지를 더한다” 고 적고 있다(Jung, 1996). 윤승중은 이 같은 예술적 터치를 “도 시에 [대한] 기여” 의 선구적 사례로 여긴다(Yoon et al., 2014). (오양빌딩의 경우를 들어 설명한) 그에 따르면 세 라믹 모자이크 벽화는 김수근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미술 가 정규(1923~71)가 도기 조각으로 만든 것이다. 건축과 미술의 협업에서 “예술의 ‘종합’ ” 을 향한 당대의 열 망을 읽게 되는 점도 이 건물 조형성의 일면이라 하겠 다.¹⁵⁾ 셋째, 이 건물에서 김수근의 조형의지를 가장 즉각 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는 입구 필로티의 구부러진 캐노피 일 것이다. 이런 형태의 캐노피는 강한 일사를 막는 면에 서는 (상징적) 유용성이 있는지 모르나 비를 피하는 데에 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강력한 조형의지가 없다면 도입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 캐노피의 형태는 전술한 르코르뷔지에 및 (르코르뷔지에의 영향을 받은)

13) 3.1절에서 서술했듯 일본 목구조를 콘크리트로 표현한 방식 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일본의 노출콘크리트는 르코르뷔지에가 이 어휘에 탐닉하기 이전 일본에서 활동했던 체코 출신 미국 건 축가 안토닌 레이몬드(Antonin Raymond, 1888-1976)의 도쿄 레 이난자카 주택(1923-26)에서 일찌감치 시작됐다. 마에카와 구니 오(1905-86)와 요시무라 준조(1908-97)가 그 사무실에서 일했는 데, 전자는 레이몬드 사무실 입소 전 르코르뷔지에 사무실에서 근무한 바 있고 이후 단계를 길러낸다. 후자는 동경예술대학 교 수로서 그 학교를 다녔던 김수근에게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레 이몬드 스스로가 르코르뷔지에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Fujimori(1993)는 “코르뷔지에 파” 를 서술하며 레이몬드를 먼저 다룬 이후 마에카와, 사카쿠라 준조(1901-69), 그리고 단계를 다 룬다. 레이몬드와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는 Fujimori(1993) 이외에 도 Stewart(1987), Oshima(2009) 등을 참조하라.

14) 1960년대 김수근의 노출콘크리트 건축에 단계의 영향(과 단 계를 경유한 르코르뷔지에의 영향)이 있었음은 이제 정설이다. 그러나 실상 김수근 스스로는 자유센터에 대해 회고하며 “르코 르뷔지에의 조형의 매력” 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할 뿐, 굳이 단계를 언급하지는 않는다(Kim 1985; Kim,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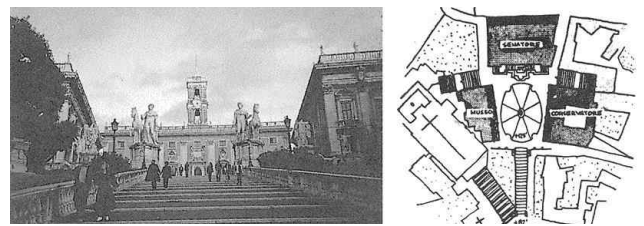
15) 조현정은 김수근의 1960년대 건물(오양빌딩, 자유센터, 수도 의대)에 정규의 “도자기 벽화” 가 등장한 데에서 예술의 종합 을 향한 당대의 “유토피아적 열망” 과 “도에 전통의 현대화” 라는 이슈가 교차한 상황을 읽는다(Cho, 2019).

단계로부터 온 것으로서 자유센터의 캐노피에서 입증될 수 있다. 자유센터 북측의 거대한 곡면 캐노피는 르코르 뷔지에의 찬디가르 국회의사당(1951~63)에서, 남측 캐노피는 단계의 구라시키 시청사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이다(Kim, 2024; Figure 13~14). 넷째, 앞의 캐노피 전면에 달아둔 두 개의 전통 문고리도 조형적 측면에서 논할 수 있는 요소다. 적극적으로 해석을 전개시킨다면 이 캐노피는 전통건축의 들어열개문과, 문고리는 들어열개 걸쇠와 연계해 볼 수도 있겠다. 윤승중이 김수근 건축의 면모 중 다소 거부감을 느꼈던 “아날로직한 모습”으로 본다면 말이다(Yoon et al., 2014). 하지만 건물 입구의 이마와 같은 곳에 선보인 이런 형태 유희는 상당히 키치적으로도 보이는데, 당시 서양에서 서서히 대두하던 포스트모던에 동반된 것인지도 모른다. 흥미롭게도 김수근은 자유센터의 북측과 남측 캐노피 등에도 동일한 문고리를 달아두었다(Kim, 2024).

(3) 건물의 공간성: 이렇듯 김수근의 수도의대 신축 병동은 비슷한 시기 그의 여타 건축물에서처럼 조형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논할 수 있고, 간혹이지만 실제 그런 측면을 위주로 언급돼왔다. 하지만 서론에서 제시했듯 민현식이 이 건물에서 발견했다는 “공간감”은 이를 공간성의 측면에서 재고케 한다(Min, 1993). 그의 말을 옮겨보자. “내가 주목하게 된 것은 이 집의 대문간에 해당하는 입구 필로티의 공간감이었다. 특히 차도와 높이를 달리하는 보행로에서 이마가 닿을 듯한 어둡고 낮은 스케일의 공간이 주는,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팽팽한 긴장감과 그곳을 지나 만나게 되는 밝고 큰 중앙광장의 해방감이 일련의 이야기로 엮어져 있음을 체득하게 되었다. [...] 이러한 새로운 발견은 나에게 엄청난 충격과 환희를 주었고 더불어 건축의 본질에 대한 어떤 확신을 심어주었다.”

민현식은 이 건물의 낮고 어두운 필로티 공간을 통과하며 느꼈던 “팽팽한 긴장감”이 밝고 큰 광장을 만나며 “해방감”으로 급변한 순간, “엄청난 충격과 환희”를 경험했다고 말한다. 여기서 ‘형태’가 아닌 ‘공간’이야말로 “건축의 본질”임을 확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 같은 공간감을 그가 이후 경험했던 로마의 캄피돌리오 광장과 연계한다(Figure 15). 이미 있던 건물들에 미켈란젤로의 새로운 건물이 덧붙여짐으로써 광장에 “공간적 위요감”이 조성된 점을 수도의대에서도 발견했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건물들에 더해 김수근의 신축 병동이 추가로 섬으로써 광장에 위요감이 형성되는데(Figure 10), 그 공간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입 통로를 낮고 어둡게 했을 것이라고 그는 해석했다. 신축 병동이 세워져서 공간을 더 둘러싸는 것은 김수근의 디자인과 무관하게 이미 정해진 일이었겠지만, 진입 통로의 공간감을 광장과 대조적으로 조율하는 일은 건축가의 몫이니 그 해석은 수긍할 만하다. 설령 건축가가 특별하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공간감을 예민하게 느끼고 발견한 민현식의 분별력은 이 건물을 하나의 오브제로만 보던 이해를 크게 확장한 것이어서 뜻깊다고 하겠다. 한편, 민현식은 이곳에서의 “공간의 흐름과 공간의 스케일”이 한국 전통건축에 근

거한다고도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했다(Min, 1993). 이를 긍정하고 본다면 아마도 우리 전통의 누하진입(樓下進入) 방식이 가장 근접한 연계성을 가지지 않을까 싶다. 예컨대, 병산서원의 위요된 앞마당에 이르기 위해서는 만대루 아래의 낮은 공간을 (그곳의 기둥은 일종의 필로티인데)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Figure 16). 이 같은 이해는 전통건축과의 연계를 형태적 유비(analogy)가 아닌 공간 관계로 보게 된 한국 현대건축의 주요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김수근에게 국한해 볼 때, 1967년 부여 박물관(1965~68) 왜색시비를 거쳐 1971년 ‘궁극공간’을 발표함과 동시에 공간사옥의 건축을 시작한 것이 그 흐름의 분수령이었다(Kim, 2021ab).



a) Upward view toward the piazza b) Site plan
Figure 15. Michelangelo Buonarroti, Campidoglio, Rome, 16th century, illustrated in Min (1993)



a) Front view of the Mandaeru b) Enclosed courtyard
Figure 16. Byeongsan Seowon (Confucian Academy), Andong, 16th century (Author's photos)

민현식의 경우를 보자면, 그에게 건축 “교과서” 이상이었다던 수도의대 신축 병동이 그 자신의 디자인에 큰 영감을 주었음은 자연스런 귀결일 것이다. 그가 「우석대학 부속병원의 기억」을 출판하기 직전 해인 1992년 완공한 국립국악학교(1988~92)가 대표적인 예다(Min, 1992ab; Figure 17). 이 학교는 일반교과동과 전문교과동이 정방형 마당을 둘러싼 모양새를 이룬다. 여기서 그 마당 네 변은 모두 열주로 둘러싸였지만, 전후면의 열주 일부가 필로티여서 공간은 안팎으로 통했다. 즉, 너른 마당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필로티를 진입해야 했던 것이다. 민현식은 당시 이 디자인을 비롯한 여러 사례를 두고 ‘비움’을 내세웠는데(Min, 1992b),¹⁶⁾ 그 비워진 마당 공간을 진입하는 방식은 수도의대에서의 발견이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16) 1992년 4.3그룹 전시회 도록에는 국립국악학교, 신도리코 기숙사, ‘마당깊은 집’이 수록됐는데, 그 주제는 ‘비움’, ‘비움의 건축화’였다. 이후 그는 “비움의 구축”이라는 말로 그 개념을 정리하기도 했다(Min, 2005; Kim, 2018).



Figure 17. Hyun-Sik Min, National Korean Classical Music School, Seoul, 1988-92, as published in 4.3 Group, *Echoes of an Era*, 1992 (Source: Min, 1992b)

4. 결 론

김수근의 초기작인 1960년대 전반의 수도의대 부속병원 신축 병동은 자유센터 등 비슷한 시기의 다른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왔지만, 김태수나 민현식과 같은 건축가는 이를 한국 현대건축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례로 간주한 바 있다. 특히 민현식은 이 건물에서 김수근의 조형의지보다 더 중요한 공간적 맥락을 발견하고 자기의 건축 성장에 교과서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 건물을 독립된 오브제로 여기며 주로 노출콘크리트에 근거한 조형성에만 관심을 가졌던 기존 인식을 크게 뛰어넘는 견해다. 본고는 이 지점에 착목해 김수근의 신축 병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했다. 지금까지 강조해온 건물의 조형성을 인정하고 재검토하는 동시에, 이 건물이 기존 캠퍼스 및 도시의 맥락에 어떻게 놓이는지와 그로 인해 공간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수근의 신축 병동은 캠퍼스 남동쪽 끝자락에 위치해 해화동 로터리 옆 대로를 면하는 게이트 빌딩이다. 내원객은 현관을 통해 이 병동으로 진입하기도 하지만, 도보로든 차량으로든 이 건물의 필로티 공간을 통과해 수도의대 병원 영역에 이를 수 있다. 즉, 신축 병동은 캠퍼스와 인근 도시의 맥락을 이어주는 매개물인 것이다. 한편, 이 캠퍼스는 1920년부터 조성됐기 때문에 여러 겹의 시간 켜가 공존했는데, 경사지붕과 박공면이 특징인 모더니즘 이전 시기의 건물(예: ‘병원본동’)과 근대 기능주의적 건물(예: ‘신관병동’)로 대별할 수 있다. 여기에 김수근의 노출콘크리트 신축 병동이 한층 더 업데이트된 최신의 시간 켜를 덧입히게 된 것이다. 둘째, 기존의 이해처럼 노출콘크리트의 조형성은 이 건물에서 일차적으로 논할 수 있는 특성이다.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르코르뷔지에와 단계의 영향이 엿보이는데, 입구의 구부러

진 캐노피와 같은 특정 부분에는 그 영향 관계가 더욱 뚜렷하다. 캐노피에 문고리를 달아 둔 점은 전통과의 관계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키치적이어서 포스트모던의 흐름과도 연계될 수 있다. 또한 입구 필로티의 관통로 측벽에 제작된 미술가 정규의 세라믹 모자이크 벽화는 노출콘크리트 건물에 풍부한 이미지를 더하며 조형성을 높여준다. 셋째, 이 건물이 게이트 빌딩으로서 도시와 캠퍼스를 매개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역시 1층 필로티 공간의 관통로다. 민현식이 느꼈듯, 이 낮고 어두운 통로는 이후 맞이할 밝고 커다란 오픈 스페이스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읽을 수 있다. 그 긴장과 이완의 대비는 건축가가 공간의 흐름과 관계를 조율함으로써 성취했다는 것이다. 한편, 신축 병동이 기존 건물군에 덧대어짐으로써 형성한 “공간의 위요감”은 유럽의 광장과도 견줄 만하지만, 낮은 통로를 지나 넓은 공간에 이르는 방식은 한국 전통의 누하진입을 떠올리기도 한다. 현대건축의 전통 수용 문제가 형태적 유비로부터 공간적 관계로 전이된 상황이 이 건물에 대한 관점의 변천에도 내포됐다고 하겠다.

본고의 사례연구는 김수근의 수도의대 부속병원 신축 병동이라는 하나의 건물만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이는 1960년대 김수근의 초기 건축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한국 현대건축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단지 그 건물 자체만이 아니라 그 건물에 대한 평자들의 발언과 인식을 함께 봄으로써 말이다. 이 연구가 확장한 김수근의 초기 건축에 대한 이해라면 역시 ‘공간’의 중요성과 관련한다. 즉,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김수근의 건축에서 공간은 1960년대 초부터도 중요했다. 다만 김수근(과 김수근 팀)이 주목한 공간의 속성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다. 물론 그 차이는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대공간’을 뜻하는 (1966년 11월 『공간』 창간호의 주제였던) ‘메이저 스페이스(Major Space)’에 대한 관심이 1970년대 들어 우리 정서에 친밀한 ‘궁극공간’과 ‘모태공간’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김수근의 대표작 공간사옥에도 반영된 까닭이다(Kim, 2021a & 2022a). 그런데 이 연구의 맥락에서는 “메이저 스페이스의 대표작”으로 자유센터가 거론됐던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Lee & Han, 1966; Kim, 1968). 자유센터 남측 출입구의 낮고 기다란 캐노피를 통과할 때 느끼는 긴장감이 메이저 스페이스로 명명된 중앙 홀의 공간감을 증폭시키는데, 수도의대 건물의 필로티를 지나 오픈 스페이스에서 경험하는 공간감과 유사하기 때문이다.¹⁷⁾ 그리고 이 같은 메이저 스페이스를 ‘당(堂)’이라는 개념으로 계승한 윤승중의 영향이 (‘당’과는 무관할지 몰라도) 민현식에게로 흘러갔기 때문이다(Kim, 2022b).

이런 흐름은 김수근 이후 건축가들을 이해할 실마리를

17) 둘은 기본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내외부 관계에서는 상반된다. 낮은 통로를 지나 맞이하는 메이저 스페이스가 자유센터에서는 건물 내의 홀이었다면 수도의대에서는 외부 광장이었다. 이 사실은 흥미로운 만큼 별도의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제공해 준다. 특히 민현식이 수도의대 건물과 관련해 형태가 아닌 공간에 천착했던 바는 1990년대 한국건축의 담론과 연계될 수 있다. 그가 1990년대 전반 4.3그룹 멤버로 활동했고, 그 가운데 지적 중심을 잡아준 인물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당시 그가 관심을 가진 ‘비움’이라는 명제와 국립국악학교, 신도리코 기숙사, ‘마당 깊은 집’ 등의 디자인은 마당이라는 ‘공간’, 그리고 더 나아가 거기 내포된 정신성과 관련된다. 어쩌면 민현식이 자기 건축론의 근거를 더 튼튼히 다지기 위해 김수근 건축의 선례를 가져왔는지도 모른다. 특히 이미 철거된 건물을 회고하며 그 가치를 크게 부각해야 하는 입장에서 말이다. 그렇다면 민현식이 수도의대 신축 병동에서 새로이 발견했던 공간감은 그의 디자인과 좀 더 구체적으로 견뎌지며 해석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REFERENCES

1. Banham, R. (1966). *The New Brutalism: Ethic or Aesthetic?*, London, Architectural Press.
2. Cho, H. (2019). Ceramic Murals in the 1960s: Intersection between the Synthesis of the Arts and Tradition Debates in Architecture, *Korean Bulletin of Art History*, 53, 103-122.
3. Fujimori, T. (1993). *Modern Architecture in Japan 1*, Tokyo, Iwanami.
4. Jung, I. H. (1996). *Architect Swoo-Geun Kim*, Seoul, Migeonsa.
5. Kim, H. S. (2018). The Architectural Spectrum of the 4.3 Group and the Possibilities of Critical Modernism, *Architecture as Movement: Modern Architecture in South Korea, 1987-97*, ed. D. Chung, Seoul,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162-175.
6. Kim, H. S. (2021a). Revisiting the First Space Group of Korea Building, *SPACE*, 638, 124-131.
7. Kim, H. S. (2021b). In Search of Koreanness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SPACE*, 646, 124-131.
8. Kim, H. S. (2022a). Reviewing the Inaugural Issue of the SPACE, *SPACE*, 650, 124-131.
9. Kim, H. S. (2022b). The Significance of Architect Yoon Seungjoong, *SPACE*, 658, 124-131.
10. Kim, H. S. (2024). Swoo-Geun Kim's Architecture and the Freedom Center, *What does the future have in store for the "Freedom Center"?* ed. Society of Korean Modern Architecture and Urbanism, Seoul, Zip, 28-39.
11. Kim, S. G. (1966). New Ward of Soo-Do Medical College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22, 41.
12. Kim, S. G. (1968). Feature: Architect Swoo Geun Kim 1968, *SPACE*, 3(4), 15-65.
13. Kim, S. G. (1980). Feature: Korean Architect Kim

- Swoo Geun and Space Group of Korea, *SPACE*, 15(1), 12-214.
14. Kim, S. G. (1985, January 15). Freedom Center: Architect's Own Words, *Kyunghyang Shinmun*.
15. Kim, W. S. (1975). S. G. K. BLDG., *SPACE*, 10(6), 51-54.
16. Kim, Y. T. (1993). Myeongryundong Cooperative Apartment Housing, *Architect*, 129, 26.
17. KUMC (1972). *Yearbook*, Seoul, Korea University Medical College.
18. KUMC Hospital (1972, January 10). Announcement, *Dong-A Daily*.
19. Lee, K. S., & Han, C. J. (1966), The Major Space for Today, *SPACE*, 1(2), 42-43.
20. Min, H. S. (1992a). National Korean Classical Music School, *Architecture and Culture*, 131, 90-99.
21. Min, H. S. (1992b). Min Hyun-Sik, *Echoes of an Era*, 4.3 Group, Seoul, Ahn Graphics.
22. Min, H. S. (1993). Recollection of Woo-Suk Medical College Hospital, *Architect*, 129, 24-25.
23. Min, H. S. (2005). On Publishing Structuring Emptiness, *Structuring Emptiness*, Min, H. S., Seung, H. S. & Khang, H. Paju, Dongnyok, 7-23.
24. NGII (1972). *National Information Map*,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Retrieved August 11, 2023 from <http://map.ngii.go.kr>.
25. Oshima, K. T. (2009). *International Architecture in Interwar Japan*,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6. SDMC (Soo-Do Medical College) Hospital (1965, September 15). Invitation, *Dong-A Daily*.
27. Society of Korean Modern Architecture and Urbanism & Korea Architect Institute (2019). *Namyong-dong Anti-communist Interrogation Office*, Seoul, Zip.
28. Song, R. (1993). Disappearing Modern Buildings in Korea, *Architect*, 129, 13-28.
29. Stewart, D. B. (1987). *The Making of A Modern Japanese Architecture*, Tokyo, Kodansha.
30. Tange, K., & Fujimori, T. (2002). *Kenzo Tange*, Tokyo, Shinkenchikusha.
31. WSMC (1970). *Yearbook*, Seoul, Woo-Suk Medical College.
32. Yoon, S. J., Jeon, B. H., Woo, D. S., & Choi, W. J. (2014). *Seung-Joong Yoon Oral Record*, Seoul, Mati.

(Received Dec. 21, 2024/ Revised Jan. 10, 2025/ Accepted Jan. 24, 2025)